

5,200인분 나눔행사로 진행한 2020 오리데이 면역력 강화 뛰어난 오리고기 드시고 코로나19 건강하게 이겨내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오리자조금)와 한국오리협회는
5월 1일(금) 제18회 오리데이를 맞아 경기도 성남시 소재 노숙인 보호시설
'안나의 집'에 오리고기 5,200인분을 후원했다.

오리데이 행사는 5월 2일이 오리(5·2)와 발음이 비슷한 데서 착안해
2003년부터 5월 2일을 오리고기 먹는 날로 지정해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오리고기를 홍보하고, 아울러 소비촉진을 통해 오리농가도
돕기 위해 매년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 행사를 자제하고 오리고기
나눔행사와 온라인 이벤트로 대체하면서
코로나 정국에 맞는 맞춤 오리데이를 선보였다.



코로나19 중단된 무료 급식소 오리고기 후원은 '뜻 깊은 선물'

오리자조금과 한국오리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의 영양보충을 위해 연말까지 총 8회에 걸쳐 5,200인분의 오리고기를 매월 25일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날 처음으로 전달된 오리고기는 650개의 도시락으로 조리돼 '안나의 집' 무료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들에게 전달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황의 여파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이 위축되며 실제 많은 무료 급식소들이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이번 오리고기 후원은 노숙인들에게 뜻 깊은 선물이 될 전망이다.

김만섭 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한국오리협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오리데이를 맞아 온 국민이 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오리고기를 드시고 코로나19를 건강하게 이겨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오리자조금
노숙인보호시설
'안나의 집'에
오리고기 5,200인분 후원
”





오리데이 라디오 기념 방송 오리자조금 SNS 퀴즈 이벤트

이밖에 오리자조금과 한국오리협회는 4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대민지원 활동을 펼치는 육군 50사단 장병들을 위해 사단 전 병력을 대상으로 생오리를 위문품으로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5월초 황금연휴 기간을 맞아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 까지 온가족 보양먹거리인 오리고기를 전국 이마트에서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기도 했다.

한편, 오리자조금은 오리데이를 맞아 tbsFM, SBS파워FM과 함께 오리데이 기념 방송을 5월 1일과 2일에 걸쳐 진행했으며, 오리자조금 SNS '좋은날우리오리'에서는 오리데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퀴즈 정답자를 대상으로 오리고기 선물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
연말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월 25일
오리고기 나눔행사
”



2020년
5월 2일 오리데이

안나의 집
ANNAHOUSE

오리고기
5200인분
후원

매월 25일은 오리데이!
오리고기로 영양보충하세요!





5200인분의 오리고기는 연말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일 25일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나의 집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 이진홍 전무(사진 오른쪽)가 노숙인 보호시설 '안나의 집' 김하중 신부에게 오리고기 5,200인분 후원 명패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 이진홍 전무와 오리자조금 실무자들이 안나의 집 관계자들과 함께 오리고기 후원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떨어진 체력을 보강하는 보양식으로 인기 많은 오리고기. 이날 회차로 전달된 오리고기는 650개의 도시락으로 조리돼 무료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들에게 전달됐다. 사진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만든 오리주물럭 조리과정과 650개의 도시락을 포장하는 모습

